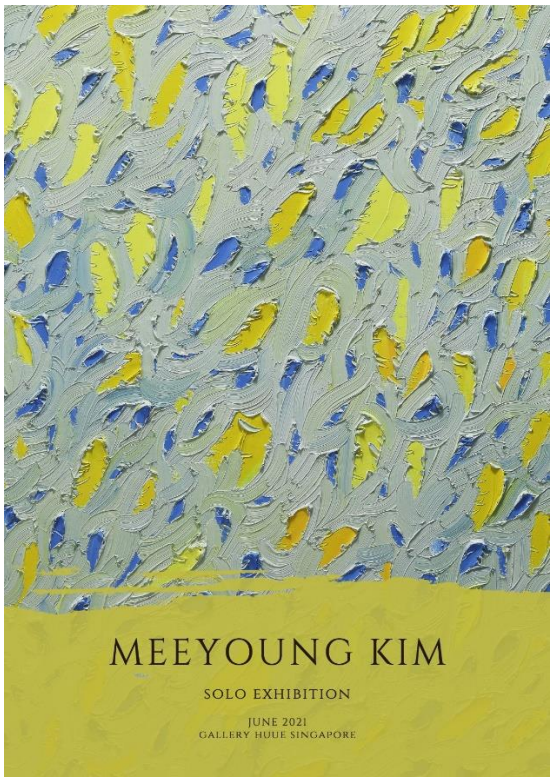
T. 02-2235-2822 | info@galleryhuue.com

Synthetic Moment

Meeyoung Kim SOLO EXHIBITION

김미영 개인전

2021년 6월 – 9월



■ 전시 개요

전 시 명	Synthetic Moment
작 가 명	김미영
기 간	2021 년 6 월 ~ 9 월
장 소	The Work Project, Asia Square Tower (#11-01, Asia Square-Tower2,12 Marina View, Singapore 018961)
오 프 닝	미정
전 시 작 품	약 20 점
담 당 자	갤러리휴 (info@galleryhuue.com)

T. 02-2235-2822 | info@galleryhuue.com

■ 전시 소개

갤러리 휴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작가만의 표현방식으로 공감각적 찰나를 캔버스에 담아내는 김미영 작가의 싱가포르 첫 개인전, Synthetic Moment 展 을 개최한다.

김미영 작가는 유화의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법을 찾으면서 물감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를 캔버스 화면 위에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의 그림은 재현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기 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공감각적 찰나를 붓질과 색을 통해 자신만의 에너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작가가 느꼈던 매우 인상적인 순간일 수도 있고, 아주 소소하게 느꼈던 작은 감정일 수도 있다. 작가가 포착하려고 했던 다양한 기억 속 감각들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축적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회하는 매체는 멈추어 있는 정적인 장르이지만 작가는 움직이고 있는 듯한 화면을 만들고 싶어한다. 아름다운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나 흐르고 있는 물, 그리고 포근하게 내려오는 눈 등의 움직임처럼 마치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현상이라고 작가는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에 시선이 여기 저기로 움직이며 생명력을 발산하는 것에서 풍성한 영감을 갖고 그것을 화면에 어떻게 옮길 지에 대해 고민한다.

작가의 작품에는 시기 별로 탄생하게 된 몇 가지의 시리즈가 존재한다. 대부분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은 기법을 발전시키다 보면 새로운 시리즈의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이번 싱가포르 전시는 6년 전 뉴욕에서의 첫 개인전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개인전만큼 지난 5~6년의 시간 동안 작업해온 여러 시리즈를 총 망라하여 다양하게 선보인다.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붓을 중점적으로 이용해서 그린 후에 큰 붓으로 밀어내고 다시 그리는 구상적 풍경을 보여줬다면, 근작으로 갈수록 나이프 사용의 비중이 커지면서 색채와 농도가 주는 톤의 움직임과 거리감, 그라데이션 그리고 캔버스 밖으로 돌출되는 물감의 덩어리들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상태'을 일정하게 보여준다.

김미영 작가는 먼저 짜여진 캔버스에 물감이 부드럽게 올라가도록 젯소를 여러 겹 칠한 후에 연필과 자를 이용하여 그리드를 남긴다. 이것은 작가에게는 심리적인 장치로서, 작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행하는 통로로 상정하고 있기에 자신이 서있는 공간과 회화 안의 세계를 하나의 문이나 창문으로 생각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이 화면을 채워나갈 붓질이나 색, 그리고 분위기를 상상해보며 차분하게 사용할 색과 붓을 정한다. 그리고 유화 물감과 재료를 준비하여 추상적으로 계획했던 터치와 색감을 캔버스 화면에 바르기 시작한다. 또한 이 단계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물감을 순차적으로 리듬감 있게 올리기 위한 선적인 구획 정리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예기치 못한 효과들을 포용하며 이전의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긋고, 펴고, 덮고, 흘러내리게 하는 방식으로 캔버스 전체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녀 특유의 추상성을 더해 나간다.

T. 02-2235-2822 | info@galleryhuue.com

그녀의 회화와 조각 사이, 그 어딘가 소조의 방식을 닮아 있다. 작가의 회화성(painterliness)은 소조의 방식과 결합되며 회화의 깊이는 이미지가 아닌 색, 물성, 표면에 대한 회화적 고찰로 치환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여러 레이어로 중첩된 유화 물감의 물성들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 서사적인 요소보다는 촉각적 궤적으로 화면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더 드러난다. 2017 년에 탄생한 Wet on Wet 개인전에서는 캔버스 화면이 조각적 회화로 변이되는 과정을 즐기며 아예 캔버스 화면에 다량의 물감 덩어리를 바르고 평면 위를 조각적으로 구축하면서, "그림의 촉감"을 더듬어 나가는 자신의 회화를 다각도에서의 관람 포인트(multi-angle view point)로 명시하였다. 작가는 그 뒤에도《그림의 촉감(Touch of Eyes)》(2020) 개인전에서 회화면(picture plane)에 물감이 채색됨으로 야기되는 표면의 역동성과 긴장감이 독자적 매체 자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관심을 선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태도는 회화적인 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작가는 은색과 금색의 반짝거리는 안료의 사용과 물감에 흰색을 섞어 사용하는 것이 주요 역할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저는 회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술의 장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회화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계가 무궁무진하다고 믿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 감정적인 치유나 위로가 많이 되는데, 보는 관객들도 그림을 감상하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명확한 메세지보다는 즐거운 기억을 회상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그림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울림이나 감동,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회화를 다루는 저는 보는 사람을 계속 끌어 당기고 눈을 멈추고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의미있는 회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바라보고 있을 가치가 있는 회화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화가 갖고 있는 힘은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이들에게 전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거의 10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동양화와 한국화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배웠다.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Korean Painting(동양화)를 배웠고 그 뒤, 영국의 Royal College of Art 로 유학을 간 뒤에는 Painting 를 전공하였다. 현재는 유화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학 전에 배웠던 한국화의 기법에서 재료와 색감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자연스럽게 내재 되어 발현되고 있다.

작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회화의 기준에 매일 조금씩 다가가려고 애쓰며, 여러가지 추상적 회화의 기법들을 끊임없이 실험하며 더욱 아름답고 미묘한 회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김미영 작가만의 회화를 의미있는 예술 작품으로 여길 해외 컬렉터들이 이번 개인전을 통해 확산되길 바란다.
이번 개인전은 싱가포르 The Work Project 라는 대규모 오피스 공간에 설치되며, 싱가포르 최초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다

T. 02-2235-2822 | info@galleryhuue.com

■ 주요 작품 소개

Lemon and Blue Wave
2021 / Oil on canvas / 117 x 91 cm

The Painter's Farm (Lime and Cobalt Blue)
2021 / Oil on paper / 91 x 117 cm

Taste of Rose
2021 / Oil on canvas / 72.7 x 60.6cm

Tone
2020 / Oil on paper / 91 x 117 cm

■ 작가 소개

T. 02-2235-2822 | info@galleryhuue.com

김미영 (사진=갤러리 휴)

작가 약력

김미영 Meeyoung Kim (b. 1984)

2014 왕립예술대학교 회화전공 대학원, 런던, 영국
2011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전공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서울, 한국
200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화과 미술학부, 서울, 한국

개인전

2020 Touch of Eyes, 이화익갤러리, 서울, 한국
2019 Summer Hill, 노블레스컬렉션, 서울, 한국
2018 Painted Painting, 갤러리기체, 서울, 한국
2017 Wet on Wet, 이화익갤러리, 서울, 한국
2016 Sunlight House, 레스빠스 71, 서울, 한국
2015 Both Sides Now, 스페이스 챕터투, 서울, 한국
2015 Green Paintings, Sophie's Tree, 뉴욕, 미국
2012 Disconnected Connection, 갤러리 도스, 서울, 한국

주요 그룹전

2020 Nunc Fluens, Foundwill Art Society(FAS), 서울, 한국
2020 우연히 즉흥적인, 도잉아트, 서울, 한국
2019 디어식물, 소다미술관, 화성

2018 New Memories in Holiday,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한국
2018 올오버, 하이트컬렉션, 서울, 한국
2018 산책,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8 Waiting For The Sun, SíM Gallerí,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
2018 Layered/Overlapped, AMC Lab, 서울, 한국
2017 직관, 학고재갤러리, 서울, 한국
2017 뉘앙스, 갤러리 기체, 서울, 한국
2017 코쿤전, 스페이스 K, 과천, 한국
2016 오픈스튜디오, 보우아츠트러스트, 런던, 영국
2016 Rules, ONE AND J. GALLERY, 서울, 한국
2014 Art Graduate Prize,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런던, 영국
2014 Mok Space Award, 런던, 영국
2014 SHOW RCA, 왕립예술대학교, 런던, 영국
2014 Summer Exhibition, 왕립예술원, 런던, 영국
2013, 2014 RCA Secret, 다이슨갤러리, 런던, 영국
2013 PNTG NOVEMBER, 헨리무어갤러리, 런던, 영국
2013 Portes Ouvertes, 시테레지던시, 파리, 프랑스
2013 Nomadologies, 오픈 플랜, 런던, 영국
2013 Notes to Self, 다이슨갤러리, 런던, 영국
2013 시간의 귀, 신한갤러리, 서울, 한국
2012 기억의 정치, 자하미술관, 서울, 한국
2011 쿤스트독 아티스트 클러스터, 쿤스트독, 서울, 한국
2010 Wonderful Pictures,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AWARD & RESIDENCY
2019 Vanha Paukku Artist Residency, Lapua, Finland
2018 SíM Residency,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
2018 Finnish Artists' Studio Foundation Residency, 에스포, 핀란드
2014 Herbert Smith Free Hills Art Graduate Prize Short Listed, 런던, 영국
2014 Mok Space Award Finalist Listed, 런던, 영국
2013 파리 스튜디오 어워드, 왕립예술대학교, 런던, 영국
2013, 2016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 프랑스
2011 Kunst Doc Leipzig Residency, 라이프치히, 독일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The Work Project, 싱가폴
호반건설, 파주
하나은행 HQ
대명리조트, 제주
ODE Maison, 서울

T. 02-2235-2822 | info@galleryhuue.com

(주)광주요, 서울
(주)신세계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용원 CC, 창원
Roland Cowan Architects, 런던
나진병원, 대전

개인소장

서울, 판교, 남해, 제주, 대구, 부산, Tokyo, Hong Kong, New York, Los Angeles, Miami, London, Croydon, Leipzig, Frankfurt, Helsinki, Ho Chi Minh 등 다수